

목 차

1. 문화재 관련

- 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정보관리 '영망'
- 2) '만화로 보는 용인 문화재 이야기' 발간
- 3) 문화재청,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기타

- 1)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정보관리 '엉망'

제민일보 | 2016.12.29. (목)

도 감사위 종합 감사 통해 문화재 비효율적 관리 지적

세계유산본부가 문화재 자료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6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 29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유산과 국가·지방문화재 380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향토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본부는 연도별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재 기록 정보화에 대한 사항을 빠뜨려 문화재 조사와 보존정비 결과 등을 책자에 수록하거나 CD에 저장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민원불편은 물론, 재난재해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문화재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문화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문화재 기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주의 3건, 시정 4건, 통보 5건 등 행정상 처분 12건과 주의 9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화로 보는 용인 문화재 이야기’ 발간

경기일보 | 2016.12.29. (목)



용인시가 지역 대표 문화재 25개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만화로 보는 용인 문화재 이야기’를 발간,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화로 된 ‘용인 어린이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이라는 책자 1천부를 발간, 지역 200여곳의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비치했다.

책자는 관내 지정 및 향토문화재 170개 중 각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 문화재 25개를 2명의 초등학생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 청동기 시대부터 근대까지 시대순으로 탐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46배판 117쪽 분량으로 돼 있다.

소개된 주요 문화재는 용인 창리 선돌부터 왕산리 지식묘, 보정동 고분군, 처인성, 정몽주 묘와 총렬서원, 심곡서원과 조광조묘, 이사주당과 유한규의 묘, 덕온공주의 당의와 의복, 이한응 열사 묘소, 장욱진 가옥 등이다.

용인시는 이 만화책자를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애乡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화로 보는 문화재 책자를 발간했다”며 “용인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재청,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매일일보 | 2016.12.29. (목)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문화재청>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29일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金允謙 筆 嶺南紀行畫帖)」은 진재(眞宰) 김윤겸(1711~1775년)이 합천, 거창, 함양, 산청과 부산(동래) 등 영남지역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14장의 화첩이다.

이 작품은 김윤겸이 1770년(영조 46) 소촌 찰방에 임용될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경상도 지역 진경산수화이다. 소촌(召村) 찰방(察訪)은 소촌도(조선시대 경상도 진주의 소촌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의 역참을 관리하는 종6품 외관직을 말한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선비들의 여행과 시문서화(詩文書畫) 예술의 창작 상황을 잘 보여주며, 작품 자체로도 과감한 생략이 가미된 단순한 표현과 옅은 청색으로 표현한 해맑은 선염(渲染) 등 김윤겸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잘 드러낸 그의 대표작이다.

선염(渲染)은 동양화에서 물을 칠해 마르기 전 붓을 대어 몽롱하게 표현한 번짐 기법이다.

김윤겸(金允謙, 1711 ~ 1775)은 본관이 안동으로, 자는 극양(克讓), 호는 진재(眞宰)·산초(山樵)·묵초(默樵) 등이다. 문인화가이기도 한 김창업(金昌業,)의 서자로 부친의 그림 취미를 이어 개성적 화풍을 이뤘다.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문화재청>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靑磁 象嵌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承盤)」은 퇴화(堆花) 기법으로 초화문(草花文)을 베푼 주전자와 승반(밀받침 접시)이다.

주전자와 승반이 한 묶음으로 구성돼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완전한 조합과 구성, 당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몸체, 자유로운 필치로 정성스럽게 그린 생동감 넘치는 문양 등에서 세련된 퇴화 기법의 정수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퇴화(堆花) 기법은 도자기 몸에 물감을 두껍게 올려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다.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문화재청>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靑磁 竹筍形 注子)」는 지정된 다른 상형청자(象形靑磁)에서 볼 수 없는 죽순(竹筍)을 형상화한 상형청자로, 여러 식물 모양 청자 가운데서도 조형과 장식, 그리고 유색(釉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특히, 기형의 독창성과 더불어 우아한 조형미, 그리고 빙렬(氷裂)이 거의 없는 완벽한 표면, 은은한 광택의 유색 등 질적인 완성도 면에서 최상급 상형청자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다.

빙렬(氷裂)은 유약을 바른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간 상태를 말한다.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 <매일일보>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는 상형과 투각(透刻)의 두 가지 기법이 어우러져 밀도 있게 표현됐으며 특히, 푸른빛의 유색이 유달리 뛰어나다.

고려청자 붓꽂이는 많은 예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목호·연적 등 문방구들과 더불어 고급품이 많은데 이 붓꽂이는 사각형의 몸체와 용머리 장식이 인상적이다. 이 붓꽂이는 희소성 외에도 아름다운 조형과 유색, 투각·음각·양각·철화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이다.

투각(透刻)은 조각에서 묘사할 대상의 윤곽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거나 윤곽만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巨洞寺) 오주암(五周庵)에서 제작해 불영사에 봉안했다는 분명한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는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後佛畵)로 봉안된 것으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畵員) 승려인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제작한 것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는 중국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화상(蒙山和尚)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略錄, 간략하게 줄여 적은 서책)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한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金允謙 筆 嶺南紀行畫帖)」은 진재(眞宰) 김윤겸(1711~1775년)이 합천, 거창, 함양, 산청과 부산(동래) 등 영남지역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14장의 화첩이다. 이 작품은 김윤겸이 1770년(영조 46) 소촌 찰방에 임용될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경상도 지역 진경산수화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선비들의 여행과 시문서화(詩文書畫) 예술의 창작 상황을 잘 보여주며, 작품 자체로도 과감한 생략이 가미된 단순한 표현, 옅은 청색으로 표현한 해맞은 선염(渲染) 등 김윤겸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잘 드러낸 그의 대표작이다.

* 김윤겸(金允謙, 1711 ~ 1775)은 본관이 안동으로, 자는 극양(克讓), 호는 진재(眞宰)·산초(山樵)·묵초(默樵) 등이다. 문인화가이기도 한 김창업(金昌業)의 서자로 부친의 그림 취미를 이어 개성적 화풍을 이룸

* 소촌(召村) 찰방(察訪): 소촌도(조선시대 경상도 진주의 소촌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의 역참을 관리하는 종6품 외관직

* 선염(渲染): 동양화에서 물을 칠하여 마르기 전 붓을 대어 몽롱하게 표현한 번짐 기법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靑磁 象嵌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承

盤)」은 퇴화(堆花) 기법으로 초화문(草花文)을 베낀 주전자와 승반(밀받침 접시)이다. 주전자와 승반이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완전한 조합과 구성, 당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몸체, 자유로운 필치로 정성스럽게 그린 생동감 넘치는 문양 등에서 세련된 퇴화 기법의 정수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 퇴화(堆花) 기법: 도자기 몸에 물감을 두껍게 올려 무늬를 만드는 기법**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靑磁 竹筍形 注子)」는 지정된 다른 상형청자(象形靑磁)에서 볼 수 없는 죽순(竹筍)을 형상화한 상형청자로, 여러 식물 모양 청자 가운데서도 조형과 장식, 그리고 유색(釉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특히, 기형의 독창성과 더불어 우아한 조형미, 그리고 빙렬(氷裂)이 거의 없는 완벽한 표면, 은은한 광택의 유색 등 질적인 완성도 면에서 최상급 상형청자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다.

*** 빙렬(氷裂): 유약을 바른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간 상태**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꽃이(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는 상형과 투각(透刻)의 두 가지 기법이 어우러져 밀도 있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푸른빛의 유색이 유달리 뛰어나다. 고려청자 붓꽃이는 많은 예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목호·연적 등 문방구들과 더불어 고급품이 많은데 이 붓꽃이는 사각형의 몸체와 용머리 장식이 인상적이다. 이 붓꽃이는 회소성 외에도 아름다운 조형과 유색, 투각·음각·양각·철화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이다.

*** 투각(透刻): 조각에서 묘사할 대상의 윤곽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거나 윤곽만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巨洞寺) 오주암(五周庵)에서 제작하여 불영사에 봉안하였다는 분명한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각 회상(會上,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모임)을 나란히 배열한 안정된 화면 구성과 격조 있는 인물 묘사,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밝고 온화한 색감을 통해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특히, 지물을 든 천장보살과 지장보살 아래로 협시(夾侍, 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두 보살)가 보살이 아닌 무장형(武將形)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삼장보살도가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지물(持物): 부처나 보살, 천왕 등이 그들의 권능이나 자비를 상징하면서 손에 지니고 있는 물건**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는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後佛畫)로 봉안된 것으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畫員) 승려인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아미타여래와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팔대보살, 그리고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며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을 갖추었고, 정교하고 치밀하면서도 유려한 필선, 안정된 색감과 문양을 통하여 우수한 화격을 보여준다.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畫師)간의 교류를 통한 화맥(畫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가치가 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는 중국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화상(蒙山和尚)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略錄, 간략하게 줄여 적은 서책)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간행 당시 인출한 초인본(初印本)으로 원문이 손상되지 않고 전 장을 갖추고 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한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등 7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